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④ 03. ⑤ 04. ② 05. ① 06. ④ 07. ③ 08. ② 09. ② 10. ① 11. ③ 12. ③ 13. ⑤ 14. ① 15. ④ 16. ③ 17. ③ 18. ⑤ 19. ④ 20. ①

1.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가상 대화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참된 앎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덕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이성을 통해 덕에 대한 보편적 정의(定義)를 탐구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정치적 명예를 높이는 데 필요한 수사학을 중시한 이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피스트이다.
- ②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보다 이성적 성찰로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아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은둔 생활을 권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 ⑤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소피스트의 입장이다.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2. 소피스트와 플라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이고, 을은 플라톤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는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방위자가 용기의 덕을, 생산자가 절제의 덕을 발휘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 이때 세 계층은 절제의 덕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법은 피치자의 이익이 아니라 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②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정의는 통치자 계층의 이익에 근거한다.
- ③ 플라톤에 따르면 용기는 기개가 이성의 지시를 받음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용기는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덕이다.
- ⑤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

3. 노자와 공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노자이고, 을은 공자이다. 노자는 무위자연을 이상적 삶의 원리로보고 무지(無知)와 무욕의 덕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공자는 인(仁)을 바탕으로 예(禮)를 실천하는 군자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효(孝), 제(悌), 충(忠), 신(信) 등의 덕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노자에 따르면 도(道)는 만물의 근원이다.
- ② 노자에 따르면 도의 관점에서 볼 때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EBS 🔘 •

- ③ 공자는 정명(正名)과 서(恕)가 상충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④ 공자에 따르면 군주는 재화가 부족한 것보다 재화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4.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한다고[완전성] 보았다. 또한 우리가 행복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고[자족성] 보았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좋음 중 행복만이 완전한 좋음이자 자족적인 좋음이라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제력 없음뿐만 아니라 무지도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되는 덕은 품성적 덕이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 주는 것은 실천적 지혜라는 지성적 덕이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는데, 그것은 행복이다.

5. 혜능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제시문은 중국 선종 승려인 혜능의 주장이다. 혜능에 따르면 누구나 마음에 있는 자성(自性)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닫게 되면 점진적 수행이 없어도 부처가된다. 따라서 번뇌에서 벗어난 세상인 정토는 마음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혜능은 누구나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 ③ 혜능은 선(禪)뿐만 아니라 일상의 행위 속에서 집착이 없는 마음을 체험하는 수행을 강조하였다.
- ④ 혜능은 깨달음을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以心傳心]으로 보았다.
- ⑤ 혜능은 경전 공부보다는 본성의 자각을 중시하였다.

6. 맹자와 순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맹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와 달리,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상가로서 누구나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타고난다고 보았다(ㄱ). 한편 순자는 도덕의 성립 근거를 인간의 도덕적 마음이아니라 사회의 제도적 규범인 예(禮)에서 찾았으며(ㄷ), 유교 사상가로서 인(仁)을 군주의 기본 덕목으로 보았다(ㄹ).

[오답피하기]

ㄴ. 맹자는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가 언제나 상충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7. 벤담과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이고, 을은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이다. 벤담과 밀은 모두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ㄴ). 또한 벤담은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밀은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 □. 벤담과 밀의 공통된 입장이므로 B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다.
- 리. 밀의 입장이 아니다. 밀이 질적으로 높은 고급한 쾌락을 중시했지만 저급한 쾌락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8. 듀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듀이이다. 듀이는 도덕적 지식은 유용한 결과 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으며, 고정불변하는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듀이는 고정된 궁극적 목적을 설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 ③ 듀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듀이에 따르면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
- ④ 듀이의 입장에서 볼 때,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행위의 실제적 유용성에 근거한다.
- ⑤ 듀이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도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듀이에 따르면 실수는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면서 더 나은 미래에 관한 가르침이다.

9.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이 불변하는 선, 즉 신을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정답 ②

-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③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이성적 인간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 ④ 아퀴나스는 삶의 궁극 목적을 행복으로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모두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10. 왕수인과 주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왕수인이고,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으나 주희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하며 사물의 이치에 대한 앎을 극진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의 마음에 천리(天理)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② 왕수인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③ 왕수인과 주희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는 사람은 누구나 양지를 타고난다고 보았다.
- ④ 왕수인과 주희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에 따르면 격물은 본 성인 천리(天理)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이다.
- ⑤ 왕수인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으며 치지를 양지를 발휘하는 것[致良知]으로 해석하였다.

11.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이법적 실체로서의 도덕 본성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로서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ㄴ), 선이나 악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지니고 있다(ㄷ).

[오답피하기]

- ㄱ.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를 실체적 이치로 보지 않았다.
- 리. 정약용에 따르면 예(禮)는 본성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사양지심(辭讓之心)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이다.

12. 흄과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흄이고, 을은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자연적 경향성을 초월하여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르는 인간의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정답 ③

- ① 흄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이 동시에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한다면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며 선한 행동이 될 수 있다.
- ② 흄에 따르면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 데 이성은 무능력하지 않다. 이성은 행위나 정념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하고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 ⑤ 칸트는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13. 최시형과 최익현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동학 사상가인 최시형이고,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최익현이다. 동학사상은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위정척사사상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최시형은 유교의 천인합일 사상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최시형은 새로운 세상이 현실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최익현은 봉건적 신분 질서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 ④ 최익현은 의복, 식용(食用) 등 양물(洋物)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케인스와 하이에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케인스이고,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불황이나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정부 주도로 경제 활동을 계획할 경우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억압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노예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모두 자본주의 사상가로서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를 지지하였다.
- ③ 하이에크는 자유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④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가 사회 구성원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⑤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적 기초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자유방임주의가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5. 에피쿠로스와 아우렐리우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다. 에피 쿠로스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기 위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ㄴ). 에피쿠로스와 아우렐리우스는 모두 자연에 대한 탐구가 평온한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ㄹ).

- 그.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고 필연적인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16. 이황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각기 다른 연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서로 구분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이는 사단이 칠정의선한 측면이라고, 다시 말해 칠정에 포함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황은 도덕본성인 이(理)도 발한다고 보았으나, 이이는 기(氣)만이 발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황은 사단 중 하나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감정으로 보았으나, 이이는 사단은 칠정의 일부이므로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탄 감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황의 입장에 비해 이이의 입장은 X에서는 높고, Y에서는 낮으며, Z에서는 높다.

17.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의 원인인 신을 인식함으로써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인간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통 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외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피노자는 외부 대상이 발생한 인과 관계를 이해하면 외부 대상이 초래했던 감정적 동요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양태이다.
- ④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질 수 없다.
- ⑤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한다.

18. 모어와 마르크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모어이고, 을은 마르크스이다. 모어는 유토피아를,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두 이상 사회는 모두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생산이 풍족하여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이다.
- ②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에서는 필요 이상의 노동은 하지 않는다.
- ③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는 계급이 소멸한다.
- ④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 사회의 실현은 자본가 계급에 대립하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해 추구된다.

19. 홉스와 로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물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는데 이것이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

가 되는 요인이다(ㄱ). 또한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신의(信義)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 즉 국가로 통일된다(ㄴ). 한편 홉스와 로크는 모두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고 보았는데, 홉스는 생명을 지킬 권리나 신체의 손상을 피할 권리 등을, 로크는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권리 등을 제시하였다(ㄹ).

[오답피하기]

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20.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그림의 강연자는 밀이다.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데 가장적합하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밀은 개인이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밀은 개인의 자유가 민주 정부 아래에서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④ 밀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밀은 실천, 과학, 도덕, 신학 등의 주제에 대한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